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이스라엘의 갈라진 마음

(호세아 10:1 - 15)

원로목사 **이종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재목이 아닌 열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1. 두 마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2절).

두 마음은 히브리어로 '찰라크'라고 하고 영어성경에서는 smooth(미끄러운), oily(기름기가 있는), sleek(매끄러운)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두 마음을 품어 맡은 매끄럽게 하면서 행위는 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single mind)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두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불성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2절).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쳐서 깨뜨리신다고 했으니 이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앗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보호막인 국가 까지도 심판하시어 무너뜨리십니다.

2. 진실하지 않은 고백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발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다"(4절).

이스라엘은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속이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가

림만 하고 속으로는 영똥한 짓을 하므로 독초와 같이 뽑혀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은 세상의 풍습과 방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발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독초는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에 태워 집니다.

3. 표리부동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악을 행하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체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의인인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벤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6절).

벤아웬은 헛된 것의 집을 말합니다. 벤엘(하나님의집)이 벤아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왕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벤엘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금송아지를 계속 아까워하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비진리에 빠지면 어두움이 어두움인 것을 모르게 됩니다.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마치 수렁에 빠지는 사람과 같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의 침략을 받을 때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산당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정복자의 가해를 피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번째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4. 목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12절).

하나님은 의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의가 없는 사랑과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항상 의가 있어야 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 속에서 행하고, 의를 말하면서 그 속에 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목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부패한 사상과 행동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한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



신천지(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법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 198조),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월 세례식 거행

4월 세례식이 4월 5일 저녁 7시 수요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는 3월 26일까지 문답 청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해 주기 바람이며 세례식 거행을 위해 수요예배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 문의사항 임승한 집사(010-7743-3223)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육 1, 2국에서 교회학교(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한다. 우리교회 3대 목표 중의 하나는 '천국시민 양성'이며 이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다. 귀한 생명의 성장을 위해 교사로 섬길 성도들은 사무국이나 초등부 부장(김혜언집사, 010-3923-9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은빛찬양대 모집

매월 첫째주 수요일 1부 예배를 담당하였던 은빛 찬양대가 다시 모여 연습을 시작한다. 현재 수요일 1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모여 연습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수요일 1부예배 정상화 전까지 매월 첫째주 수요일 2부예배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65세 이상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교회 사랑-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내 청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실 뒷정리와 식사 후 뒷정리, 물과 전기 절약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바른 질서 위한 수단 「권징·치리」 II

- 권징, 거룩함 지켜내는 도구 -



최윤배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 조직신학)

칼뱅은 교회의 권위를 교리, 입법, 재판에 관한 권위로 구별하고, 권징을 재판과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대체로 칼뱅과 자유 장로교회 전통을 따라, 교단의 '헌법'은 크게 네 가지 내용, 곧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담고 있다. 헌법의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표준으로, 구속사와 교회 속에서 성령의 역사(役事)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내용은 항상 성경에 종속되는 동시에 성경의 내용과 정신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 '헌법'은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교회 정치'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도구와 방법이다. 치리회를 중심으로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교회가 제정한 '헌법'은 성경만큼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부족한 부분은 치리회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헌법은 항상 '교회 정치'로서 최대한 존중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한국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를 중심으로

로 가끔 덕이 되지 않는 일부 목회자와 성도의 행동과는 별도로, 일부 목회자나 일부 성도에게 가끔 발견되는 '교회 정치'에 대한 웨이키교도적이거나 회중교회적인 사고는 반드시 지양(止揚)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개혁과 윤리학자 까이페르뜨의 책 제목인 '모든 것이 정치적이지만,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Alles is politiek, maar politiek is niet alles)'라는 말은 한국 장로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칼뱅과 마르틴 부처는 '인간의 법'에 기초해 교회와 교인을 얽어매는 로마(천주)교회의 전제적(制的) 교회 정치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교회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질서한 급진과 종교개혁 진영에 비판함으로써, 성경에 기초한 교회 정치의 원리와 실천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참된 자유를 실현시켰다.

마르틴 부처(Martin Bucer)는 '참된 목회학'(1538)에서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매우 강조했다. 우리 교단도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하지만, 칼뱅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칼뱅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하는 '교리'를 '교회의 영혼(anima)'으로, '권징'을 '교회의 근육(힘줄, nervus)'에 비유할 만큼 '권징'을 강조했다. 칼뱅은 권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권징의 절차와 방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엄격주의를 배격하고, 온유한 심정과 사랑(갈 6:1; 고후 2:7~8)을 강조했다. 마르틴 부처와 칼뱅에게서 권징은 '사랑의 매'로서의 '치유와 구원의 수단'에 해당된다. 일부 기독교 교파는 권징을 선택론과 결부시켜 '출교(ex-

communicatio)' 받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은(anathema) 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마르틴 부처와 칼뱅과 장로교회는 '출교' 조차도 선택론과 결코 결부시키지 않는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회의 권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잘 계승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또한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이다. 칼뱅이 권징을 강조하고, 마르틴 부처와 대부분의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화와 성결을 통한 교회의 도덕성과 거룩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먼 나라에 있는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몇 십 년 전의 한국 장로교회의 당회록을 읽어보아도, 우리는 성경과 온유한 심정에 기초한 올바르고도 책임적인 권징을 통해 성도와 교회의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실천함으로써 성도와 교회의 거룩성을 잘 유지해 그 당시 한국사회에 모범과 귀감이 돼 존경과 신뢰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독교공보
제305호 2016년9월3일 (토)에서 발췌
(다음주 계속)

다양한 형태로 기부금 이어져...



김성수 (호산나대학 취업센터장)

2017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호산나대학에 건물인테리어 공사, 취업생 월급 심일조를 포함한 금전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대학 내 화장실 칸막이 공사(1,200만원 상당)로 오용석(노인케어학과 3학년) 부모님이 지난 3월 1일 직접 진행했습니다. 오용석 아버님은 “용석이가 호산나대학에 입학해서 소심하고 화를 잘 내던 성격들이 많이 변화되었고, 작년에 서울교회 사무국에서 실습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늘 호산나대학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학교 화장실 문이 고장이 많아, 교체해 주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희창(사무자동학과 3학년)군 어머니는 입학이후 매년 호산나대학 발전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복지개선을 위

해 올해 1,000만원 기부했고, 2016년 1,000만원 및 2015년에는 2,000만원 상당의 기숙사 매트리스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호산나대학 졸업생인 양재영(2017년 사무자동학과 졸업)양은 1월에 의정부성모요양병원에 취업해 첫 월급을 대학에 기부했고 3월부터 자신의 월급 중 10%를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호산나대학이기에 무엇보다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산나대학 교직원 일동도 학부모님들의 거액 기부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에 더욱 헌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호산나대학에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호산나대학에서 전지훈련 실시

지난 3월 10일(금) 일본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및 임원, 국내 관계자 등 12명이 2020년 동경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호산나대학을 방문했다. 발달장애인 남·여 6명으로 구성된 대표선수들은 2016년 브라질 리우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해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전지훈련을 위해 대학측에서는 학생들과 공동예배, 대학안내, 체력측정, 체력훈련, 탁구훈

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전지훈련을 이끌고 있는 박지현감독은 (전 탁구여자국가대표 감독) “호산나대학에서의 전지훈련은 일본 선수들에게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시설제공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측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택 집사 (5교구)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몸으로
이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죄 많은 저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이들 중에
저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더 앞세웠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그 크신 고난을
묵상해봅시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므로
우리가 살아남 같이
나를 쳐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따라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몸되신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인도네시아 선교보고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어린이 성경공부 시간에 이슬람 어린이들도 참여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어린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11살의 때오나(여자 어린이)는 부모님



서광중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들

으로부터 선교센터에 나오는 것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너무나 선교센터에 나오길 싶어하는데 매번 어머니로부터 제지를 당합니다. 아이가 너무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슬람을 버릴까봐 걱정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어린이 영혼의 영적 전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광중 선교사는 압디엘 교회음악 대학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 대학원에 서광중 선교사와 3분의 교수님들이 더 헌신하여 주셔서 함께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올 부활절에 부화에 관련된 칸타타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현재 「증인들의 고백」 번역과 숫자 악보로 바꾸는 작업이 마무리에 작업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는 여러 교회들을 초대하는 자리로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2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연습에 들어갑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 살라티가 시 설립 1주년 기념식을 하였습니다. 오마바빠 생일잔치에 참여한 주민들은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1월 초에 저희 딸 파란하늘(7세)이가 대문을 열다가 대문이 파란하늘이에게 넘어져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6바늘을 꿰맸습니다. 철문이고



끝에 뽀족한 장식이 있어서 아이가 대문에 눌렀다면 큰 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다행히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과 팔에 멍이 든 것 외에는 큰 외상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다쳐서 우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 놓으셨을 때 아파셨을까 하며 하나님의 심정의 아주 조금이지만 느껴보았습니다. 아침에 파란하늘이가 “엄마 예수님이 문을 잡아주시길 같아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잡아주시지 않으셨으면 큰일이 날 뻔 했다는 것을 이 아이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고가 나자 이웃들이 모두 와서 걱정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모릅니다.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광중 이성일 선교사의 사역에 충성과 복종과 겸손함이 있기를 위해서
 3. 압디엘 교회 음악 신학대학원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4. 신학생 학업을 위한 장학금을 위해
 5.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오마 바빠 선교센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이슬람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6. 저희 가족의 영적인 충만함과 강건함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특히 딸 파란하늘이를 위하여
-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서광중 이성일 드림



순례자 편집부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사순절, 종려주일시, 부활절에 해당하는 동시, 시, 수필, 신앙간증을 공모합니다. 모집 마감은 4월 10일까지이며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22일(수) 충남금산중부교회 목사위임예배 권면을 한다.

■ 출간 : 12교구 김선영3 집사(필명 : 김화요) (하국수 집사 조영자권사 자부) 「공룡 관찰일기」 푸른책들 출판사

■ 특남: 11교구 신두호 집사 한연주 성도 (15교구 신웅식 장로 김신영 권사 장남 가정)

■ 지난 주 식사 및 간식 찬조 : 박정희 최봉애 장애인영희(5) 김진숙 전화진 서희숙 이흥숙 노인숙 이관모 선혜영 이인숙 김은순 최금숙 최죽희 이용자 정미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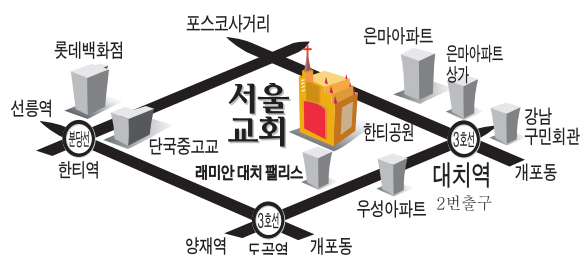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2.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3.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